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공로 감사패 수상

정읍시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우선구매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정읍시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인 1%를 넘어선 1.22%를 달성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구매율(총구매액의 1.1%)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화계담당자 교육을 시행하고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읍=김대환기자

영 · 호남 도시재생 상생 발전 모색 정읍시 워크숍

영남과 호남의 도시재생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정읍에서 마련됐다.

정읍시는 지난 20일 컨퍼런스 센터와 도시재생 지역 일대에서 '2025년 영·호남 도시재생 교류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영·호남 지자체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2024년 초청 워크숍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실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경험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사례발표 시간에는 영남권의 경주시 행복환경·영천시 완산트락 사례와 함께, 호남권 대표로 정읍시의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우수사례'가 소개돼 큰 주목을 받았다.

/정읍=김대환기자

‘혁명의 도시’ 위상 세운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투의 실제 전적 학술적 고증 결과 제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투의 실제 전적 위치에 대한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학술적 고증 결과를 제시했다.

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3일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를 개최하고, 다수의 연구 성과와 검증된 자료를 통해 현재의 황토현 전적이 실제 전투의 중심지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황토현 전적은 실제 전투지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시와 재단은 다수 연구자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반론하고, 검증된 역사 자료를 통해 황토현 전투의 실제 전개 양상과 현재 위치를 고증했다.

다.

학술연구에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전공자·동학단체·유족·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3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실제 전투지의 역사 현장을 고찰하고 기념공간의 올바른 정비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첫 발표에서 정수환 서울대 연구원은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고증'을 통해 관군과 농민군의 전투 흐름·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그는 고지도와 지형자료 연구를 근거로 현 황토현 전적의 위치가 실제 전투의 중심축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조광환 동학역사문화연구소장

은 '정읍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진' 발표를 통해, 1963년부터 지난 60년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돼 온 기념사업의 전개 과정과 현재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백진 서울대 교수는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 재구성 및 기념공원 연계 활용 방안'에서 현재 기념공간의 미흡한 구성과 역사적 전달력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미래 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천일염, 코스트코 납품... 전국 소비자 만난다”

해리농협 소금 제품, 전국 코스트코 20개 매장 입점

고창군의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고창 천일염'이 회원제 유통기업 코스트코(Costco)의 전국 20개 매장에 공식 입점했다.

이를 기념해 지난 22일 오후 해리농

협 천일염가공사업소에서 '코스트코 입점 기념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 안찬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부본부장,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창 천일염의 전

국 유통망 진출을 축하했다.

코스트코 입점 품목은 '고창 구운소금(800gX2개입)'과 '해리농협 탈수 천일염(5kg)'이다. '고창 구운소금'은 약알칼리성 소금으로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 '탈수 천일염'은 간수를 제거해 쓴맛을 줄이고 미네랄을 풍부하게 유지해 풍미를 살린 제품이다.

코스트코 입점은 해리농협이 수년간 추진해 온 품질 혁신과 브랜드 신뢰 구축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해리농협 천일염가공사업소는 현대화된 가공설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천일염의 가공·포장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갑선 해리농협 조합장은 “고창의 청정 갯벌과 해리농협 임직원들의 정성이 모여, 고창 천일염이 코스트코 전국 매장에서 소비자와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5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건강걷기 행사

부안군 보건소(소장 박찬병)에서는 지난 22일 장애인의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응원하기 위한 '2025 제5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 건강걷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안 해탈마루정원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 등 200여명이 사전 희망시간을 신청해 총 4회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조와 함께 건강걷기를 진행했다.

한마음 건강걷기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걷기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동 등 다양한 이동 방식을 통해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냈다.

박찬병 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구직자에 취업 · 기업에 우수 인재

2025 정읍시 하반기 취업박람회 '성료'

정읍시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025 정읍시 하반기 취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일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청년·중장년·시니어·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뜨거운 취업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박람회는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청년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각종 일자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행사장은 △채용관 △홍보관 △힐링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채용관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17개 업체가 참여해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원스



톱 구인 활동을 진행했다. 홍보관에서는 이력서 작성 컨설팅·취업 상담·이미지 메이킹 등을 지원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도왔고 힐링존에서는 LED 전광판을 통한 기업 소개 영상으로 구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퍼스널 컬러 진단·취업타로·AI체질관·이력서용 사진촬영·취업 스트레스 검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의회, 변산해수욕장서 환경정화 활동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3일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4일부터 열리는 '2025 부안 붉은노을축제'를 앞두고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원들은 본격적인 정화활동에 앞서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변가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주변 시설 정비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병래 의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 즐기는 축제인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가 먼저 발 벗고 나섰다”며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고교 성적우수 장학금 확대

1인 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난 22일 심덕섭 고창군수(이사장) 등 이사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지역인재 지원사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도 신규사업(1인 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승인(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2025년 장학금 지원사업 변경승인(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향후 재단은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

원한다.

이번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50만원,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선발인원을 2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성적 기준도 내신 2등급 이내, 90점 이상에서 내신 3등급 이내, 80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재단에서는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해 2025년 고창군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4개 분야)과 '1인 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